

#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

시편 57:1-11

## 【인도자를 위한 예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후회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나서 ‘ 괜히 했어!’ 하고 후회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 ‘ 그때 그것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당시에는 하지 않는 이유가 수만 가지는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반대로 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시킵니다. 적극적으로 살게 합니다. 도전적으로 살게 합니다.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저는 매우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결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단하게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사역지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믿음을 따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이 선명합니다. 삶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 이규현, 「담대함」(두란노)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나요?

## 【본문 읽기】 시편 57: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56편과 57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둘 다 다윗이 고난을 받던 시기에 지은 탄원시로, 본문인 57편은 ‘간구와 신앙’이라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느라 초긴장 상태며, 만일 사울의 군대에 발각이라도 되면 즉시 처형당할 상황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1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 혹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17:8; 36:7; 57:1; 63:7; 91:4). 이 하나님의 보호는 마치 닭이나 새가 자신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두 차례 동굴에 숨었습니다. 한 번은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의 굴이며(삼상 22:1~5), 또 다른 한 번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에 있는 굴입니다(삼상 24:1~7). 다윗의 추격자 사울은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나요?(4, 6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며 영혼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4절에서 ‘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라는 표현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가 숨어 있는 굴 근처를 두루 다니는 사울의 군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창끝과 화살촉’은 사울의 잔혹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 앞에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는 원수들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숨어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 창과 화살을 겨누며, 오직 그 일에만 혈안이 되었고, 다윗은 곧 사울에게 발견되어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막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6절). 두려운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대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때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적용과 나눔 I

**내가 경험한 불의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흔들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원수들이 그물을 치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을 굳건히 '고정'했지만(6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정했다'고 표현합니다(7절). '확정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쿤'은 6절에서 '그물을 쳐 놓아(고정하였으니)'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쿤'의 수동형입니다. 비록 원수는 다윗을 잡고자 그물을 고정했지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찬양은 준비된 마음으로 불렀다는 점에서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과 궤를 달리합니다(Calvin). 이는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함을 보여 주며,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7~11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의 진리가 궁창에 이를 만큼 높기에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인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온 광야를 샅샅이 수색하지만,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심을 어려서부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원수의 그물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원수들로 하여금 자신이 파 놓은 구렁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십니다. 삶을 통해 이를 경험한 다윗은 언제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만백성과 우주 만물의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 적용과 나눔 II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위기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삶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려울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에게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고백합니다. 셋째, 간구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파악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은 적들과 같지 않음을 스스로 살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안전하게 지키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원수들의 계획과 궤계에서 다윗을 건지실 뿐 아니라, 그들이 파 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자멸케 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일곱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 앞에 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